

<http://dx.doi.org/10.17703/JCCT.2017.3.1.9>

JCCT 2017-2-2

흡연경고문이 대학생의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Smoking Warning Statement for Smoking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염슬기*, 장태양*, 박광주*, 장영현**

Yeom Seulgi, Chang Taeyang, Park Kwangju, Chang Younghyun

요약 본 논문은 담뱃갑에 표기된 흡연경고문구가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흡연 경고문구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 129명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흡연경고문의 유무에 따른 흡연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흡연경고문이 제시된 것과 제시가 되지 않은 것, 두 종류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수집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흡연 경고문 목격 유무가 흡연 태도 점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부모님의 흡연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흡연경고문, 흡연태도, 금연, 흡연예방, 금연광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moking warning phrases on cigarette packages on students' attitudes toward smoking. Two research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igarette warning phrase.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129 students of Chung - Ang University were us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attitude toward smoking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moking warnings,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Statistical program SPSS 18.0 was used and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witnessing the smoking warning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moking attitude score. Sex and parental smoking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Key words : Smoking Warning Statement, Smoking Attitude, No Smoking, Smoking Prevention, No Smoking Advertisement

1. 서 론

한국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가입한 이래로 담배의 소비와 흡연의 폐해를 막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담뱃갑에 경고 문구의 기재, 담뱃갑 인상 정책 및 금연 구역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준회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회원, 배화여자대학교 스마트IT학과(교신저자)

접수일: 2016년 12월 15일, 수정완료일: 2016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10일

Received: 15 December, 2016 / Revised: 21 December, 2016

Accepted: 10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cyh@baewha.ac.kr

Dept. of Smart IT, Baewha Women's University, Korea

있다[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담배와 관련된 정책 중 기존의 담뱃갑에 표기된 “흡연 경고문”에 대하여 보다 초점을 맞추어 담뱃갑에 기재된 흡연 경고문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흡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여 흡연 경고문의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흡연의 해악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보건 정책들이 꾸준히 실시되어 왔고, 흡연이 각종 질병 가령 예로 들어 암,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킨다는 각종 연구 결과들이 차례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연 비율 혹은 금연율에 크나큰 차이가 생기지 않았는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에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1/3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원인 1위인 암은 흡연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 암 발생의 30%가 흡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2014년 20.0%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속한다. 더불어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3년을 기준으로 약 4만 6천명, 흡연관련 환자의 수는 12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3].

성인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흡연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흡연율을 살펴보자면, 한국 금연연구소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평균 대학생 흡연율은 2004년 42.7%(남자64%, 여자21.5%)였지만 2009년 평균 47.7%(남자69.7%, 여자25.7%)로 기록하면서 6년 사이 평균 5%가 높아진 것으로 기록되었다[4].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흡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약 4조 8,548억이며 이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5]. 흡연으로 인한 각종 비용문제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구 담뱃갑 경고 표기는 1976년 이래로 도입된 이후로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나 담뱃갑의 흡연 경고문만으로는 흡연의 해악을 공중으로 효과적으로 알려 금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함 부분이 있다는 평이 자자하다[6]. 더불어 2005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기관 R&R과 공동으로 실시한 담뱃갑 경고표기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현행 담뱃갑 경고 표기가 금연하게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혹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1200명의 조사대상자 중 944명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였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경고문에 따른 흡연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담뱃갑 경고 표기의 실효성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고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언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흡연태도

태도는 사물, 사람, 제도 또는 사건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자세로서 태도는 비교적 지속적이며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소인이 되며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중재 요인이 된다. 태도는 조직된 일련의 신념으로 구성되며 같은 주제에 대해 개인의 내부에는 다양한 대립되는 신념이 존재할 수 있다 [7]. 또한 태도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소인이 되며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중재요인이 된다 [8]. 즉 다양한 흡연에 대한 신념과 가치로 구성된 태도는 흡연행동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태도는 건강교육에 있어 흡연행동의 중요한 건강상의 중재요인이 된다.

흡연태도는 흡연행동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흡연 태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태도에 관한 연구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성인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에 대한 태도변화를 살펴 보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좋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이 남자 중학생의 경우 1988년 79.5%에서 1999년 69.3%, 남자 고등학생은 49.3%에서 33.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여자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1991년 78.6%, 59.0%에서 1999년 63.6%, 46.3%로 감소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응답한 남자 고등학생은 1988년 40.5%에서 1999년 48.4%로 증가하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은 1991년 34.8%에서 1999년 41.9%로 증가하였다[9]. 또한 친구 흡연이나 자신의 장래 흡연 의사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흡연거부태도를 보이는 반면, 흡연이 멋있어 보인다는 흡연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비교적 흡연을 수용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10]. 위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흡연태도는 과거부터 우리사회가 성인 여성 및 남성들의 흡연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였으며, 담배가 유해물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무절제하게 수용하는 사회적분위기로 기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Naidoo와 Wills[11]의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변수에 의존하는데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변화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태도와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기대하는가와 개인이 다른 사람을 닮아가고 순응하고자 하는 주관적 규범에 의존한다고 한다. 즉, 흡연태도는 개인이 생각하는 흡연에 대한 태도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규범이 융합되어 흡연의지와 행동에 대한 변화의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Naidoo와 Wills[11]은 태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신념, 가치관, 사고방식이 이미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지만, 태도는 많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적인 금연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서 흡연의 유해성이 알려지고, 다양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과 함께 국가로부터의 경고문구와 같은 흡연규제 등을 통한 주관적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생의 흡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흡연경고문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와 관련된 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나뉜다. 흡연경고문과 관련하여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값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내법 중에서 담배 포장 및 라벨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12]. 우리나라는 WHO에서 출범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로 인해,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 4월부터 2년씩 담뱃갑 경고문구를 순환하여 기재하도록 한 경고문구가 이전에 사용했던 경고문구와 차별성과 고유성 없이 구태의연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뒷면에 각각 1개씩만을 2년씩 순환하여 적용하기로 했다[13].

표 1. 우리나라 현행 담뱃갑 건강경고 문구
 Table 1. Korea's current smoking cigarette health warning

연도	경고문구 내용
2005년 4월 ~ 2007년 3월	-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07년 4월 ~ 2009년 3월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p>2009년 4월 ~ 2011년 3월</p>	<p>-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p>
<p>2011년 4월 ~ 현재</p>	<p>-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 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코틴, 타르, 니켈, 벤젠, 비닐 클로라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p>

담뱃갑 경고문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흡연자가 충분히 인지하게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흡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로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현행 담뱃갑 경고문구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보자면, 인지도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군이 81.6%, 금연효과는 보통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군이 45.6%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인지도에 비해서 금연효과는 낮게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담뱃갑 경고문구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게 집계되었지만 흡연자인 대학생들이 금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현행 담뱃갑 경고문구가 흡연자들의 흡연 태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14]. 조경숙과 신윤경(2006)의 우리나라 시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현행 경고문구에 대한 평가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3%였으며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78.7%였다. 더불어 전체 응답자

중 현행 경고문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87.2%로 보고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담뱃갑 경고 문구가 금연 정책의 수단으로서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담배사업법을 토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담뱃갑 흡연 경고문의 전형적인 강조는 흡연의 부정적인 결과에 한정하고 있다. 즉, 담뱃갑 흡연 경고문은 흡연의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이라는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15]. 그 예시로, 모든 담뱃갑에 명시되어 있는 경고문은 흡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출산의 부작용, 간접흡연의 폐해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3,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해 200개의 금연 텔레비전 광고들을 일곱 개의 뚜렷한 메시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과 죽음, 걸점 감추기, 위험에 빠진 가족, 흡연자의 부정적 생활환경, 거절 기술 역할 모델, 마케팅 전술, 질병과 죽음을 팔기의 총 일곱 개의 금연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16]. 외국의 일곱 개의 금연 메시지 유형 중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오직 한 가지 유형인 “질병과 죽음” 유형의 강조에만 국한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내외로 흡연경고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흡연 경고문의 한계와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흡연경고문이 대학생의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02월 03일부터 02월 05일까지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 목적 및 취지를 설명 후 직접 설문지 배포를 실시하였으며, 직접 설문지를 통해 총 128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3.2 주요 변수 및 조사도구

3.2.1 종속변수 : 대학생의 흡연태도

본 연구에서는 흡연경고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흡연태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류기오[17]의 논문에서 설문지를 발췌, 수정하여 총 인구통계학과 관련한 2문항과 흡연태도 측정 관련 20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5점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값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흡연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각 항목의 값을 평균화하여 변수값으로 사용하였다.

3.2.2 독립변수 : 담뱃갑에 표기된 흡연경고문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담뱃갑에 표기된 흡연경고문의 효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담뱃갑에 표기된 흡연경고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할시, 하나의 설문지에는 흡연경고문을 제시하였고 다른 하나의 설문지에는 흡연경고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작성하였다. 두 개의 설문지를 각기 다른 집단에 배포하여 각 집단의 흡연태도에 관련한 문항의 척도상의 점수 차이를 측정한 후 차이를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흡연경고문이 대학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변인, 흡연경고문의 인식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흡연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측정하고자 하며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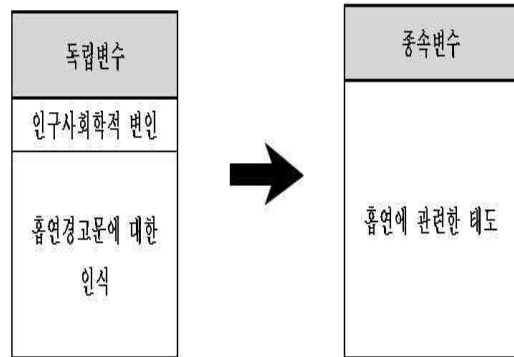


그림 1. 흡연경고문이 대학생의 흡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Fig 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moking Warning Statement on Smoking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3.4 연구가설

위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흡연경고문이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남자일수록, 그리고 부모님이 흡연자일수록 흡연경고문의 영향은 적을 것이다.

3.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를 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일반적 특성 및 흡연경고문이 흡연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흡연경고문이 흡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변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실시한 주요 변수들에 대해

일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과 같다. 흡연 태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94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분석요소별로는 각각 비흡연의지(.880), 주변인의 흡연(.789), 나의 흡연 영향(.693), 일반적인 태도(.855)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Table 2. Reliability coefficient of major variables (Cronbach's α)

변수	분석요소	문항수	α
흡연태도	비흡연의지	6	0.88
	주변인의 흡연	5	0.789
	나의 흡연 영향	2	0.693
	일반적인 태도	7	0.855
			0.942

4.2 조사대상자의 특성

4.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부모님의 흡연여부를 포함하였다. 전체 응답자 129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값은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은 남성이 70명(54.3%), 여성이 59명(45.7%)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부모님의 흡연여부는 아무도 안피우신다가 87명(67.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한분만 피우신다가 40명(31.0%), 두 분 다 피우신다 2명(1.6%)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3.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구분	N(명)	구성비율 (%)	
성별	남	70	54.3
	여	59	45.7
부모님 흡연여부	아무도 안피우신다	87	67.4
	한분만 피우신다	40	31.0
	두 분 다 피우신다	2	1.6

4.2.2 조사 대상자의 흡연태도 특성

응답자의 전반적인 흡연태도는 100던 만점에 평균 86.18±14.49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흡연태도를 보였다. 최소 20점에서 100점까지 나타났으며, 이를 비흡연의지, 주변인의 흡연, 나의 흡연 영향, 일반적인 태도의 네가지 분석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흡연의지 영역 총 6문항의 평균은 25.89±5.12점이었으며, 주변인의 흡연 영역 총 5문항의 평균은 21.37±3.89점으로 나타났다. 나의 흡연 영향 영역 총 2문항의 평균은 8.96±1.6점이고 일반적인 태도 영역 총 7문항의 평균은 29.95±5.39점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흡연태도 특성
Table 4. Smoking Attitud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변수	분석요소	문항수	M±SD
흡연태도	비흡연의지	6	25.89±5.12
	주변인의 흡연	5	21.37±3.89
	나의 흡연 영향	2	8.96±1.6
	일반적인 태도	7	29.95±5.39
합계		20	86.18±14.49

4.3 흡연경고문의 효과

흡연경고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가설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1 가설 1: 흡연경고문이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흡연경고문의 제시 유무에 따라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t-test 결과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흡연경고문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차이
 Table 5.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smoking amo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smoking warnings

특성	구분	흡연에 대한 태도		
		N	M ±SD	T (p값)
	실험집단(경고문구 有)	68	89.65±10.81	
경고문구				-2.888 (0.005)
	비교집단(경고문구 無)	61	82.31±16.99	

표 5.를 보면 $t=-2.888$, $p=0.005$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고문구의 유무에 따른 흡연태도는 경고문구를 제시한 실험집단이 89.65점으로 82.31점인 경고문구가 없는 비교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것은 실험집단에 속한 대학생들이 비교집단에 속한 대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흡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뱃갑의 흡연경고문은 대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흡연 경고문이 성별과 부모님의 흡연 여부에 따라 흡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 6.과 같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남, 여의 태도점수는 거의 같았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성별을 독립변수로 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t(p)=-0.483(0.631)$, $t(p)=-0.086(0.932)$ 로 유의수준 95%하에서 성별에 따른 흡연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부모님의 흡연여부에 따른 실험집단 내의 대학생의 흡연 태도에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일원 배치분산분석 결과 $f=1.559$, $p=0.218$ 로 유의수준 95% 하에서 부모님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태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비교집단 내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는데 두분 모두 피우신다 라고 답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피신다와 한분만 피우신다라고 답한 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흡연경고문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 차이 (성별, 부모님흡연여부에 따라)

Table 6.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smoking amo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smoking warnings(Depending on sex, parental smoking)

특성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N	M ±SD	N	M ±SD
성별	여	33	90.3 ±	26	82.04 ±
	남	35	89.03 ±	35	82.51 ±
부모님의 흡연 여부	한분만	21	91.00 ±	19	77.16 ±
	두분	2	77.00 ±	0	0
아무도 안 피우신다	실험집단	45	89.58 ±	42	84.64 ±
	비교집단	45	89.03 ±	42	82.51 ±
아무도 안 피우신다	실험집단	21	91.00 ±	19	77.16 ±
	비교집단	21	89.03 ±	19	82.51 ±

그 결과 $t=1.615$, $p=0.112$ 로 유의수준 5%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내에서 성별과 부모님의 흡연 여부라는 특성은 대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2 가설 2. 성별, 부모님의 흡연여부, 흡연경고문의 목격 유무와 대학생의 흡연 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 성별, 부모님의 흡연여부, 흡연경고문 목격 여부 변수의 더미변수화

가설 검증에 앞서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가 모두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위해 더미 변수 코딩을 실시하였다. 성별 변수는 남자일 때 1 여자일 때 0으로 하는 sex_dum으로 코딩하였고 부모님의 흡연여부 변수는 두분 모두 피신다라는 항목을 two_dum, 한분만 피신다는 항목을 one_dum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흡연경고문 목격 유무 변수는 목격하지 않았을 때 0, 목격했을 때 1로 하는 trt변수로 코딩하였다.

2) 성별, 부모님의 흡연여부, 흡연경고문 관측 유무가 흡연 태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성별, 부모님의 흡연 여부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경고문 목격 유무가 흡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경고문 목격 유무는 앞선 과정으로 더미변수화 시켰고 흡연 태도는 리커트 5척도 설문지를 통해 도출해낸 태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경고문 인지 여부가 흡연 태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effect on smoking attitudes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moking awareness

변인	비표준화된 계수		표준화된 계수	t
	B	SE	β	
constant	83.626	2.499		33.469* **
성별	-.715	2.503	-.025	-.286
one_dum	-2.901	2.701	-.093	-1.074
two_dum	-13.964	10.142	-.120	-1.37
흡연경고문	7.696	2.505	.266	3.072**

$R^2 = .085$

adj $R^2 = .056$

F = 2.895

* $p<.05$, ** $p<.01$, *** $p<.001$

이를 통해 분석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경고문 관측 유무가 흡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7.과 같다. 대학생의 흡연에 대한 태도는 흡연 경고문의 목격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고문을 목격을 하면($B=7.696$, $p<.01$) 흡연 태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 경고문이 부정적인 흡연 태도를 확립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력은 5.6% 였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흡연 경고문이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담뱃갑의 흡연경고문이 흡연의 해악을 효과적으로 알려 금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연에 대한 흡연 경고문의 효과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고문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고문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흡연 경고그림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흡연자들에게 전달해 금연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흡연 경고문구와 흡연 경고그림 시안이 주는 흡연 경각심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고문구 보다 경고그림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12] 경고그림이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흡연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흡연자에 대한 금연 교육, 그리고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도 함께 이루어질 때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김선경[18]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 후 전후 흡연태도를 측정한 결과 교육 후 대학생의 흡연에 대해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또한 김수영[19]의 선행연구에서 흡연을 시작하지 않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회의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연예방 태도를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 흡연예방 태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그림이 제시되고, 금연교육, 흡연예방 교육이 병행된다면 흡연을 감소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본 연구가 지닌 한계는 4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를 하나의 대학교 학생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의 흡연자, 비흡연자를 나누지 않아 흡연이라는 변수가 누락되었다. 셋째, 흡연경고문을 봤던 과거 경험이 라는 외생변수를 조절하지 못하였다. 넷째, 다중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5.6%로 낮아 선행식의 설명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담뱃갑 경고문구가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금연광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제 2016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적용 시행을 앞둔 시점에 현재까지 시행 되어왔던 담뱃갑 경고문구의 실효성을 돌아보고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는데 본 연구가 작게나마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 낸 것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향후 위 한계를 보강한 연구 및 흡연 경고문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가 실행

되어 지기를 바란다.

Reference

- [1]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753191>
- [2] WHO,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9; Physician's smoke-free Canada", 2008
- [3] Jee Sun Ha, Ja Kyung Lee, Il Soon Kim, "Smoking-Attributable Mortality among Korean Adults", Korean Society of Epidemiology, Vol.28, pp.92-99, 2006
- [4]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32209435744560
- [5] Young-Ho Jeoung, "Lifetime cost of obesity and smoking and long-term effectiveness of health promo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2010
- [6] Yoon Jeoung Shin, "Recomme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igarette warning labe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Oct, 2005
- [7] Simons-Morton, B. G., Greene, W. H. & Gottlieb, N. H, "Introduction to health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Waveland press", 2005
- [8] Ann, So-Jeung, "The Study of Smoking Attitude,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of Adult Mal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3
- [9] KOREAN ASSOCIATION SMOKING OR HEALTH, "Smoking and Health", KOREAN ASSOCIATION SMOKING OR HEALTH, 2001
- [10] Yoon Ju Kang, Young Kyu Park, "Attitude of Smoking Behavior and Knowledge for Smoking in School Children", Korean Family Medicine Association, Vol.17(9), pp.798-809, 1996
- [11] Naidoo, J., Wills, J, "Health promotion foundation for practice 2nded", London: Bailliere Tindall, 2000
- [12] Hyo-sook Park, "A Study of Smoking Behaviors

- of College Stud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Warning Labels and Warning Pictograms", The Graduate School of Dongkuk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12
- [13] Kyung Sook Cho, Yoon Jeong-Shin, "A Survey on the Effect of Cigarette Warning Labels", Korean Family Medicine Association, Vol.27, pp.128-135, 2006
- [14] Hyun Sook Kim, Hong Kyung Bae, Young Sung Seo, Dae Hyun Kim, Dae Sik Son, In Ho Bae, "An Evaluation on the Health Warning Messages and Graphic on Cigarette Packages in Smoking Students", Family Medicine Society, Vol.25, pp.469-474, 2004
- [15] Kim, Suk-Il, "Effect of fear appeals for the message in nonsmoking advertisement: A comparison of effects about four nonfear alternativ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5
- [16] Pechmann, C, "Changing adolescent smoking prevalence: Impact of advertising interventions",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Smoking and Tobacco Control Monograph, Vol.14, pp.171-181, 2001
- [17] Ki Oh Yoo, "The Effect of Nonsmoking Education Program on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Adolescents' Smok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nam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4
- [18] Sun Kyung Kim, "The Effect of smoking prevention & cessation education program-Focused on College Freshmen", Student Life Studies, Vol.18, pp.91-105, 2013
- [19] Su Young Kim, "The Effects of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Chonbuk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2003